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본문 비평

신현우*

1. 시작하는 말

그리스어를 쓰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신약성서 본문으로서 그리스 정교회가 계속 사용해온 본문을 전통 본문(traditional text)이라 부른다.¹⁾ 에라스무스가 전통 본문을 담은 비잔틴 사본들을 편집하여 1516년에 출판한 신약성서에 뿌리를 두고 후에 텍스투스 레셉투스(Textus Receptus)라고 불린 성경 본문은 이 전통 본문과 유사하다.²⁾ 제임스왕역본(KJV, 1611년)과 그 개정판(NKJ, 1982년)의 신약성서 부분은 바로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번역한 것이다. 텍스투스 레셉투스는 비잔틴 본문 유형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 남아 있는 그리스어 신약성경 사본들 중에 대다수는 비잔틴 본문 유형을 본문에 담고 있다. 따라서 사본의 수를 따라가면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매우 유사한 본문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구성한 본문이 바로 하지스(Z. C. Hodges)와 파스타드(A. L. Farstad)가 편집한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1982)이며, 이러한 본문을 다수 본문(the majority text)이라 부른다.³⁾ 윌리스(D. B. Wallace)에 의하면 이 본문은 6,577 군데에서 오늘날 신약학자들이 표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평 본문인 NTG²⁷(K. Aland, et al. eds.,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1993)와 다르다.⁴⁾

이 논문의 목적은 신약성서의 텍스투스 레셉투스를 본문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텍스투스 레셉투스는 NTG²⁷ 등의 비평 본문 못지않게 좋은 본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이 본문에 토대한 제임스왕역본을 따

*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1) J. W. Burgon, *Traditional Text of the Holy Gospels Vindicated and Established*, E. Miller, ed. (London: George Bell and Sons, 1896), 14.

2) Textus Receptus에 관한 자세한 소개와 개괄적인 비판에 관하여는 박창환, “텍스투스 레셉투스의 정체(正體)”, 『성경원문연구』 1 (1997), 11-33 참조.

3) 윌리스에 의하면 이 다수 본문은 1825년 옥스퍼드 판 텍스투스 레셉투스와 1,838군데에서 차이를 보인다(D. B. Wallace, “The Majority Text Theory: History, Methods, and Critique”, B. D. Ehrman and M. W. Holmes, e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Essays in the Status Quaestionis* [Grand Rapids: Eerdmans, 1995], 302, n.28).

4) D. B. Wallace, “The Majority Text: A New Collating Base?”, *NTS* 35 (1989), 613.

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본문이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원래의 본문(원본문)과 동일하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⁵⁾ 원본문을 복원하기 위해 재구성한 비평 본문 중에 하나인 NTG²⁷도 원본문과 동일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본문이 원본문과 동일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경우에는 이 본문이 원본문과 동일하다고 믿고 이러한 신념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확신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은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원본문과 다른 부분을 소개함으로써 충분히 달성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마가복음에서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원본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NTG²⁷가 원본문과 일치하며, 번역할 때 텍스트스 레캡투스와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을 다룰 것이다.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NTG²⁷과 일치하면서 원본문이 아닌 곳들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지면상 이러한 부분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비잔틴 사본들을 열등하게 간주하거나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우수하게 간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열등하다는 결론을 처음부터 전제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또한 비잔틴 사본들을 우수하게 간주하거나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을 열등하게 간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우수하다는 결론을 처음부터 전제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필자는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더 짧은 읽기”(the shorter reading)를 선호하는 원리나 “사본의 나이”, “사본의 수” 등 텍스트스 레캡투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판단 기준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들을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원본문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가려낼 것이다.⁶⁾

2.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외적 조건에 관한 평가

텍스트스 레캡투스에 관하여 본문 비평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이 본문의 외적 조건 두 가지, 즉 (1) 이 본문의 나이와 (2) 이 본문을 담은 사본의 수를 다룰 필요가 있다.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사본학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이 본문이 토대한 비잔틴 본문 유형이 다른 오래된 본문 유형들, 즉 고대 알렉산드리

5) 예를 들자면, B. Burton, *Let's Weigh the Evidence* (Chino, CA: Chick, 1983), 7-8. 여기서 버튼은 KJV가 원본에 담긴 본문을 완벽하게 전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이 논문에서 사용한 본문 비평 방법론에 관하여는 줄저, 『사본학 이야기』, 제2판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5) 참조.

아 본문 유형과 서방 본문 유형 이후에 형성된 것이라는 가설 때문이다. 한편, 텍스트스 레캡투스 지지자들이 이 본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들(주로 비잔틴 본문 유형)의 대부분이 이 본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본들의 수가 그 사본들이 담은 본문의 원본문성(originality)을 지원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텍스트스 레캡투스를 평가하려면 이러한 가설들이 얼마나 근거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1. 비잔틴 본문 유형의 후기성

2.1.1. 병합

본문 유형 중에 오래된 것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과 서방 본문 유형이다. 메츠거(B. M. Metzger)에 의하면,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은 2세기 초까지 소급된다.⁷⁾ 왜냐하면 \mathfrak{P}^{66} 과 \mathfrak{P}^{75} 등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을 담은 사본들이 2세기 내지 3세기에 필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이 일치하며 담은 본문 유형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메츠거는 서방 본문 유형이 2세기 중반 이전에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본문 유형은 이미 2세기에 순교자 저스틴(Justin), 마르시온(Marcion), 타티안(Tatian), 이레나이우스(Irenaeus)에 의해 이미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⁸⁾

현대 사본학자들은 후기 사본들에 담겨 있는 비잔틴 본문 유형을 위의 두 본문 유형보다 나중의 것으로 간주한다. 현대 사본학의 이러한 입장은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의 연구에 토대한다. 그들은 병합(conflation)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잔틴 본문 유형의 후기성을 입증한다. 병합이란 사본 갑에 A라는 표현이 있고, 사본 을에 비슷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A'이 있는데, 사본 병에 A + A'이 나타날 경우 A + A'을 부르는 이름이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24:53에서 서방 본문 유형에는 “찬송하며”(αἰνοῦντες)가 나타나고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에는 역시 같은 뜻의 “찬양하며”(εὐλογοῦντες)가 나타난다. 그런데, 비잔틴 본문 유형에는 이 둘을 병합한 “찬송하고 찬양하며”(αἰνοῦντες καὶ εὐλογοῦντες)가 나타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러한 병합에 근거해서 비잔틴 본문 유형의 후기성을 주장한다.⁹⁾

7)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64), 216.

8) B. M. Metzger, *Text*, 132. Cf. L. Vaganay and C.-B. Amphoux,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J. Heimerdinger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91-97.

9) B. F. Westcott and F. J. A. Hort,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Introduction*.

스터즈(H. Sturz)는 비잔틴 본문 유형의 후기성에 대한 학자들의 증거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발견한 병합은 단지 8개뿐이어서 증거력이 약하다고 한다.¹⁰⁾ 그는 또한 유독 비잔틴 사본들만이 아니라 고대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도 병합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¹¹⁾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킬패트릭(G. D. Kilpatrick)이 지적한 바 있다.¹²⁾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8에서 NTG(26, 27판)는 “즉시 도처에”(εὐθὺς πανταχοῦ)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티칸 사본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비잔틴 사본들과 서방 사본들은 주로 “즉시”(εὐθὺς)만을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서방 사본들은 “도처에”(πανταχοῦ)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즉시 도처에”를 “즉시”와 “도처에”를 병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티칸 사본에 이러한 병합이 있다고 해도 이 경우 시내산 사본은 “즉시”나 “도처에” 모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병합은 바티칸 사본의 읽기일 뿐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에 담긴 병합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필자의 통계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결론을 지지한다. 필자는 공관복음서에서 56개의 병합의 후보들을 발견하였고, 이 중에 24개가 실제로 병합일 개연성이 높음을 입증하였다.¹³⁾ 이 24개의 읽기들(readings)이 어느 사본들에 등장하는지 살펴보면 비잔틴 본문 유형에 8개, 서방 사본인 베자 사본에 1개, 고대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인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각각 1개 등장한다. 그런데 베자 사본과 고대 라틴어 역본이 일치하거나(즉 서방 본문 유형)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일치하는 곳(즉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에서는 병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독 병합이 많이 발생한 비잔틴 본문 유형은 후기에 형성된 본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2.1.2. 루시안의 증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비잔틴 본문 유형의 후기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병합 외에 또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4세기에 루시안(Lucian)에 의해 이루어

Appendix, 2nd ed. (London: Macmillan, 1907), 93-107.

10) H. A. Sturz, *The Byzantine Text-Type an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New York: Thomas Nelson, 1984), 83.

11) *Ibid.*, 86-87.

12) G. D. Kilpatrick, “The Greek New Testament Text of Today and the Textus Receptus”, H. Anderson & W. Barclay eds. *The New Testament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Oxford: Basil Blackwell, 1965), 192.

13) H. W. Shin, *Textual Criticism and the Synoptic Problem in Historical Jesus Research*, CBET 36 (Leuven: Peeters, 2004), 339-361.

어졌다고 추측되는 그리스어 성서 본문의 개정 작업이었다.¹⁴⁾ 비잔틴 본문 형성이 루시안의 개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18세기 중반(1765년)에 쟈머(J. S. Semler)에 의해 이루어졌으며,¹⁵⁾ 20세기에는 스트리터(B. H. Streeter), 메츠거 등이 이를 받아들였다.¹⁶⁾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루시안의 개정 작업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교부 제롬(Jerome)의 진술이었다.

Praetermitto eos codices, quos a Luciano et Hesychio nuncupatos, paucorum hominum adserit perversa contentio.¹⁷⁾

나는 루시안과 헤시키우스의 이름으로 불리는 저 사본들을 간과한다. 소수의 인물들의 고집스런 강요가 [저 사본들의 권위를] 주장한다.¹⁸⁾

물론, 루시안의 개정 작업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판 브루헌(J. van Bruggen)은 제롬의 라틴어 본문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 그에 의하면, 제롬의 진술은 루시안의 그리스어 성서 개정 작업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납된 신약 정경에 대한 추가 작업을 가리키는 것이다.¹⁹⁾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제롬은 곧 이어 신약의 개정 작업을 비평하기 때문이다.

...quibus utique nec in veteri Instrumento post Septuaginta Interpretes emendare quid licuit, nec in Novo profuit emendasse: cum multarum gentium linguis Scriptura ante translata, doceat falsa esse quae addita sunt.²⁰⁾

...분명히 그들은 구약에서 70인의 번역자들 이후에 어떤 것도 개정하지 못하였고, 신약에서 개정 작업을 하는 것도 소용없었다. 이미 여러 민족들의 언어들로 번역된 성경들은 추가된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제롬은 여러 가지 고대 역본들과 루시안의 개정 본문을 비교하며 루시안의 개

14) B. F. Westcott and F. J. A. Hort, *Introduction*, 137-138.

15) B. M. Metzger, *Text*, 115.

16) B. H. Streeter, *The Four Gospels: A Study of Origins*, 1st ed. (London: Macmillan, 1924), 112-116; B. M. Metzger, *Text*, 212.

17) Eusebius Hieronymus, *Praefatio Hieronymi in quatuor Evangelia* (J. P. Migne, ed., *Patres Latini*, vol. 29 [Paris: Migne, 1846], 527).

18) 이 논문에 실린 번역은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필자의 사역임.

19) J. van Bruggen, *De Tekst van het Nieuwe Testament* (Groningen: De Vuurbaak, 1976), 15-16. n.36.

20) *Praefatio Hieronymi* (*Patres Latini*, vol. 29, 527).

정 본문의 추가적 요소가 고대 역본들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후대에 추가된 것이 분명하다고 논증하였다.

그러나 스테르츠는 제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사 자료들에서 루시안의 개정 작업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롬이 고대 라틴어 역본을 개정한 것도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경우에는 더 큰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스테르츠는 그리스어 성서 개정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²¹⁾

그러나 스테르츠의 주장은 침묵으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silence)일 뿐이다.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이란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논증하는 것이다. 즉, p이면 q이어야 하는데 q가 아니다. 따라서 p가 아니라고 논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논리학에서 “모두스 톨렌스”(modus tolens)라고 부르는 논증 방법이다. 이러한 증명의 정당성은 p이면 q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과연 옳은가에 달려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기록된 사건보다 더 많고, 기록된 사료들도 사라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료상의 증거가 없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은 부당한 논증이다.

2.1.3. 교부들의 성경 인용

비잔틴 본문 유형의 후기성에 관하여는 또 한 가지의 증거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초기 교부들의 성경 인용이다. 메츠거는 초기 헬라 교부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들 중에 비잔틴 본문 유형으로 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²²⁾ 고대 헬라 교부들은 성경을 인용할 때 그들이 입수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어 사본들에서 인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에 비잔틴 본문 유형을 가진 사본이 이미 존재했다면, 고대 헬라 교부들의 성경 인용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잔틴 본문 유형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스테르츠는 초기 헬라 교부들의 신약 성경 인용에 비잔틴 본문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비잔틴 본문이 실제로 초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³⁾ 다시 말하면, 비잔틴 본문 유형의 초기 존

21) H. A. Sturz, *Byzantine Text-type*, 123-24, 126.

22) B. M. Metzger, *Text*, 135.

재에 대한 증거의 부재는 비잔틴 본문 유형의 부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스테르츠는 비잔틴 지역에 신약 성경 인용들을 모아서 본문 유형을 분석할 만큼 충분한 저작을 남긴 초기 교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²⁴⁾ 따라서, 비잔틴 본문이 초기에 존재했었다고 해도 그것을 발견할 길이 없다. 비잔틴 지역이 빠진 보물 지도를 보고 비잔틴 지역에는 보물이 없다고 단정한다면 곤란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기 교부들의 침묵으로부터 비잔틴 본문이 초기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결론을 끌어낼 수도 없다. 윌리스(D. B. Wallace)에 의하면 비잔틴 본문 유형은 4세기 안디옥 교부인 아스테리우스(Asterius)에게서 최초로 발견된다.²⁵⁾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비잔틴 본문 유형이 존재하였는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2.1.4. 파피루스와 비잔틴 본문 유형

스테르츠는 2세기나 3세기의 것으로 판단되는 이집트 파피루스들에 담긴 독특한 비잔틴 읽기들을 150개나 발견하고 어떤 비잔틴 읽기들은 상당히 오래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²⁶⁾ 비잔틴 읽기들이 예상치 못하게 오래된 알렉산드리아 파피루스들에서 발견된 것은 비잔틴 본문 유형이 2-3세기에까지 소급되는 오래된 읽기들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길은 없다. 메츠거도 다른 본문 유형들이 상실한 초기 읽기들을 비잔틴 본문이 보존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²⁷⁾ 그러나, 메츠거는 스테르츠에 의해 분석된 파피루스들 중에 하나도 비잔틴 본문을 가진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²⁸⁾ 즉, 그 파피루스들은 비록 비잔틴 본문에 일치하는 부분들을 몇 개 가지고 있지만,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일치하는 읽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²⁹⁾ 그러므로 고대 파피루스들에서 150개의 비잔틴 읽기들이 발견된 것은 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읽기

23) H. A. Sturz, *Byzantine Text-type*, 80.

24) *Ibid.*, 80.

25) Wallace, "The Majority Text Theory", 313.

26) H. A. Sturz, *Byzantine Text-type*, 62. 실제의 예를 보기 위해서는 H. A. Sturz, *Byzantine Text-type*, 145-59 참조.

27) B. M. Metzger, *Text*, 212. n.1.

28) B. M. Metzger,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293.

29) 필자의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에 지지하는 통계에 도달하였다. 신약성서에서 파피루스들에 담긴 읽기들을 검토해 보면, 몇 군데에서 비잔틴 읽기를 가진 파피루스들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잔틴 본문 유형을 가진 파피루스는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H. W. Shin, *Textual Criticism*, 363-68.

들이 고대 파피루스에서 발견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비잔틴 본문이 초기에 존재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스터즈에 대한 이러한 논박들은 스테르즈가 비잔틴 본문 유형의 초기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비잔틴 본문 유형이 초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파피루스들이 발견되는 곳은 이집트의 건조한 사막이다. 비잔틴 지역에 설령 비잔틴 본문을 담은 파피루스들이 있었다고 해도 습한 기후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2.1.5. 맺음말

위에서 다룬 증거들 중에 교부들의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이나 고대 파피루스에 담긴 비잔틴 본문 유형이 없다는 논증은 효력이 없지만 병합이라는 내증과 루시안의 개정 작업에 관한 제롬의 진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본학자들이 비잔틴 본문은 후기 본문이라고 간주하는 관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잔틴 본문의 후기성이 이 본문의 열등성을 함축한다는 가정을 조심해야 한다. 비잔틴 본문이 루시안의 개정 작업의 결과라고 해도, 루시안이 개정 작업을 위해 매우 우수한 사본들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 작업의 결과 생겨나는 본문이 반드시 열등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스트리터는 루시안이 우수한 동방 사본들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루시안이 소유한 것보다 심하게 열등하지 않은 사본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유형의 동방 본문으로 말하자면, 루시안은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다양하고 더 우수한 사본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³⁰⁾

비잔틴 본문 유형이 얼마나 우수한 지에 관한 평가는 비잔틴 본문의 나이에 의존될 것이 아니라 비잔틴 본문에 담긴 읽기들을 본문 비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기 본문 유형 중에도 많은 필사자의 오류를 담은 열등한 본문 유형이 있을 수 있고, 후기 본문 유형 중에도 원본문을 잘 전승한 우수한 본문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 다수의 사본들의 발생의 역사적 우연성

30) B. H. Streeter, *The Four Gospels: A Study of Origins*, 1st ed. (London: Macmillan, 1924), 119.

오늘날 대부분의 신약성서 사본학자들은 사본들의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약성서의 사본들의 대부분이 후기 본문 유형인 비잔틴 본문 유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소수의 사본보다는 다수의 사본들에 나타나는 읽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벵슈타인(J. J. Wettstein)은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Lectio plurium Codicum, caeteris paribus, est praeferenda.*³¹⁾

더 많은 사본들에 의해 지원받는 읽기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에, 선호되어야 한다.

필사자가 실수나 고의로 선본을 고치기보다는 그대로 필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가정한다면, 확률적으로도 다수의 사본에 담긴 읽기가 원문으로부터 유래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러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다수의 사본들이 소수의 열등한 사본들로부터 필사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³²⁾ 이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이지만, 신약성서 사본학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입각한 주장이 강한 설득력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고대 사본들의 수는 소수이고, 압도적인 다수가 후기 사본들이며, 후기 사본들은 거의 다 비잔틴 사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본의 수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방법론을 사용하면 이것은 비잔틴 사본들을 따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본의 수를 계산하겠다는 것과 같은 객관적인 방법론이 특정 사본 계열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주관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성을 빌미로 사본의 수를 세어야 한다는 유혹에 신약성서 사본학자들은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하지스는 1975년에 그의 강의안에서 통계학적 고찰에 토대하여 다수의 사본들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상적인 상황들 속에서, 경쟁하는 본문들보다 더 오래된 본문일수록 이후

31) J. J. Wettstein, “Animadversiones et cautiones ...”, J. J. Wettstein, ed., *Novum Testamentum Graecum*, vol. 2 (Amsterdam: ex Officina Dommeriana, 1752), 870; 그의 이탤릭.

32) B. F. Westcott and F. J. A. Hort, *Introduction*, 41-43. 메츠거는 이러한 가능성을 다음과처럼 진술한다. “어떤 읽기를 지원하는 사본들의 수만으로는 그 읽기의 우월성을 필연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에서 읽기 x 가 20개의 사본들에 의해 지원 받고, 읽기 y 가 단 하나의 사본에 의해 지원 받을 경우, 20개의 사본들이 모두 읽기 x 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필사자가 필사한 단 하나의 사라진 사본으로부터 필사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x 를 선호하는 상대적인 수적 지원은 무의미하다. 이 경우에, 읽기 y 를 가진 한 개의 사본과 읽기 x 를 가진 사본 20개의 선조 사본 한 개가 서로 비교되어야 마땅하다”(B. M. Metzger,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12^{*}).

어떤 시기에든지 존재하는 다수 또는 대다수의 사본들 속에 보존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본문은 원본이다. 그러므로, ... 대다수의 사본들은 극소수의 사본들보다 원문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³³⁾

그러나 홈즈(M. W. Holmes)는 이러한 주장의 허구성을 비판하였다. 그에 의하면, 하지스의 주장은 “정상적인 상황들 속에서”만 통하는데, 신약성서 사본들의 필사와 전송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졌다.³⁴⁾ 홈즈는 신약성서 사본들이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필사되고 전송되었음을 지적한다. 우선, 역사는 신약성서 초기 사본들에게 잔인하였다. 특히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안(Diocletian)은 명을 내려 성서를 불태우도록 명하여 많은 초기 사본들이 이때 사라지고 말았다.³⁵⁾ 고대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τὰς δὲ ἐνθέους καὶ ἱεράς γραφὰς κατὰ μέσας ἀγοράς πυρὶ παραδιδόμενας ἐπέιδομεν ὀφθαλμοῖς.³⁶⁾

그들이 영감된 거룩한 책들을 장터의 중앙에서 불태우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다.

Ἔτος τοῦτο ἦν ἐννεακαιδέκατον τῆς Διοκλητιανοῦ βασιλείας, ... ἐν ᾧ ... ἤπλωτο πανταχόσε βασιλικά γράμματα, τὰς μὲν ἐκκλησίας εἰς ἕδαφος φέρειν, τὰς δὲ γραφὰς ἀφανεῖς πυρὶ γενέσθαι προστάττοντα, ...³⁷⁾

디오클레티안 제19년에 교회들을 허물어뜨리고, 성경들을 불에 태우라는 황제의 칙령들이 도처에 내려졌다.

이처럼 많은 고대 사본들이 불타 없어지는 가운데서도, 일부 고대 사본들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7세기에 이루어진 이슬람 세력의 확장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의 수를 급감시켰다.³⁸⁾ 이 지역에서의 기독교인들의 수의 감소는 곧 이 지역에서 성경 사본의 필사가 덜 이루어지게 하고 말았다.³⁹⁾ 따라서, 이집트 지역에서 필사된 알렉산드리아 사본

33) Z. C. Hodges, “A Defense of the Majority-Text”, unpublished course notes (Dallas: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75), 9; M. W. Holmes, “The ‘Majority Text Debate’: New Form of an Old Issue”, *Themelios* 8 (1983), 15에서 재인용.

34) M. W. Holmes, “Majority Text Debate”, 16.

35) *Ibid.*, 16.

36) Eusebius, *Hist. eccl.* 8.2.1.

37) *Ibid.*, 8.2.4.

38) M. W. Holmes, “Majority Text Debate”, 16.

39) *Ibid.*, 16.

들의 수가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다수의 사본들이 보존된 비잔틴 지역은 동로마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도에 무너지기 전까지 이슬람 세력의 영향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⁴⁰⁾ 성경의 필사가 활발하게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계속 필사된 비잔틴 사본들이 다수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6세기 경에 이르러 그리스어 사용권이 비잔틴 제국 내로 좁혀져서,⁴¹⁾ 그리스어 성경 필사가 주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도 특수한 전승 상황이다. 그리스어 사용권에서 많은 그리스어 사본들이 필사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신약성서 사본의 필사와 보존은 통계학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역사의 우연이 작용하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지스의 주장은 신약성서 사본들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비잔틴 사본들의 다수성은 그것이 원본으로부터 기인하였기 때문일 필연성은 없다. 그러므로 최소한 신약 사본학에서는 사본의 다수성을 원문성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대의 한 시점에 존재하던 사본들 중에 소수의 사본들에 담겨져 있던 읽기가 오늘날에 남아 있는 사본들 가운데 다수에 담겨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제롬은 마가복음 16:9-20이 대부분의 그리스어 사본들에 담겨 있지 않고(*Epist.* 120,3), 마태복음 5:22에서 $\epsilon\iota\kappa\eta$ 가 소수의 사본들에만 담겨 있다고 지적하였는데(*Dialogus adversus Pelagianos* ii.5),⁴²⁾ 오늘날에는 다수의 사본들에 이러한 읽기들이 담겨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수의 사본들에 담겨 있는 본문이 시대에 따라 달랐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독 현재를 기준으로 정해진 다수 본문을 선호해야 할 필연성이 없다.

텍스투스 레킵투스의 우수성은 이 본문을 담은 사본들의 수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본문 비평적으로 검토하여 그 원본문성을 증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본문 비평적 작업 없이 주장되는 텍스투스 레킵투스의 우수성은 입증되지 않은 도그마에 불과하다.

3. 텍스투스 레킵투스에 담긴 필사자의 오류들: 마가복음의 경우

이제 텍스투스 레킵투스의 오류들 중에서 비평 본문을 따르는 많은 번역 성경

40) H. A. Sturz, *Byzantine Text-type*, 48.

41) M. W. Holmes, "Majority Text Debate," 17.

42) *Ibid.*, 17.

들이 담은 본문과 상당한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몇 개 뽑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는 예들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자세히 본문 비평을 해 보면 비평 본문이 원본문(the original text)과 다른 경우들이나, 비평 본문과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모두 원본문과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들을 다루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또한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원본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도 이 본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텍스트스 레캡투스에 사본학적 오류가 없다는 신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텍스트스 레캡투스에 담긴 필사자의 오류들을 몇 개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3.1. 마가복음 1:2 - “선지자들의 글에”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의 마가복음 1:2은 다음과 같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인용된 본문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말라기 3:1과 출애굽기 23:20이 융합된 것이다. 이사야의 글은 이어지는 마가복음 1:3에 등장한다. 제임스왕역본(KJV)은 여기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대신에 ‘in the Prophets’(‘선지자들의 글에’)라고 읽는다. 이것은 텍스트스 레캡투스를 따른 것인데(ἐν τοῖς προφήταις),⁴³⁾ 이어지는 구절에 말라기, 출애굽기, 이사야 말씀이 인용되는 문맥에 잘 맞는다.

텍스트스 레캡투스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ἐν τῷ Ἠσαΐα τῷ προφήτῃ)라는 읽기가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고 이것을 바꾼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만일, “선지자들의 글에”가 원본문에 있었다면 필사자들이 이것을 일부러 문맥에 맞지 않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로 바꾸었을 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더구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콥틱 역본 등에 담겨 있음)는 문맥에 맞지 않게 보여서 “선지자들의 글에”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이 읽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사역을 이사야 40장이 언급하는 새 출애굽을 배경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마가의 신학적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심오한 신학적 의도가 필사자들에 의하여 이해되지 못하여 더 쉬운 읽기로 바뀌었을 것이다.

43) 텍스트스 레캡투스는 Stephanus판 (1550)을 기준으로 하였다.

44) B. M. Metzger, *Textual Commentary*, 62;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60.

3.2. 마가복음 2:16 - “먹고 마시는가?”

『개역개정』의 마가복음 2:16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로 마친다. 한편 제임스왕역본은 “How is it that He eateth and drinketh with publicans and sinners?”라는 번역을 가진다. 즉,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라는 읽기를 가진다. 이것은 『개역개정』이 따른 ἐσθίει (‘먹는다,’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고대 라틴어 역본 등에 담김) 대신에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ἐσθίει καὶ πίνει(먹고 마신다)를 따른 결과이다.

그런데, ‘먹고 마시다’란 표현은 마가복음의 문체에 일치하지 않는다. 마가는 ‘먹다’(ἐσθίω)라는 동사와 ‘마시다’(πίνω)라는 동사를 이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서 이 두 동사가 이어서 사용된 경우는 14번인데(누가복음에서 7번, 고린도전서에서 6번, 마태복음에서 1번),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가복음 2:16의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5:30에는 ‘먹고 마시는가?’(ἐσθίετε καὶ πίνετε)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따라서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먹고 마시는가?’라는 읽기는 누가복음 5:30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엘리엇(J. K. Elliott)은 누가복음 5:30이 마가복음 2:16을 따른 결과 이러한 일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하지만,⁴⁶⁾ ‘먹고 마시는가?’(ἐσθίετε καὶ πίνετε)는 마가복음의 문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위 참조), 누가복음 5:30에 조화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

식사를 할 때에는 음식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료를 마시게 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가?”라는 표현이 식사를 묘사하기에 더욱 적합한 표현이다.⁴⁷⁾ 그렇지만 이러한 적합성은 원본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적절한 표현이 원본문에 있었다면 필사자들이 이 표현을 덜 적절한 표현인 “먹는가?”로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3.3. 마가복음 4:15 - “그들의 마음에”

마가복음 4:15은 『개역개정』에서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고 번역되었다. 그런데, 제임스왕역본은 “Satan cometh

45) B. M. Metzger, *Textual Commentary*, 62.

46) J. K. Elliott, “The Relevance of Textual Criticism to the Synoptic Problem”, D. L. Dungan, ed.,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Gospels*, BETL 95 (Leuven: Peeters, 1990), 349.

47) 프랑스(R. T. France)는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위하여 필사자들이 ‘마시는가’를 추가하였다고 지적한다(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130).

immediately, and taketh away the word that was sown in their hearts.”라고 한다. 즉, “사탄이 즉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는 읽기를 취한다. 이것은 『개역개정』이 따른 *εις αὐτούς*(‘그들에게,’ 바티칸 사본, 와싱턴 사본, *f*^{1,13} 28. 2427. 2542 등에 담김) 대신 텍스트스 레챵투스의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αὐτῶν*(‘그들의 마음에’)을 따른 것이다.

텍스트스 레챵투스가 담고 있는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αὐτῶν*(‘그들의 마음에’)은 마가복음의 문체에 맞지 않으므로 마가가 원래 쓴 본문에 담긴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마가는 *σπείρω*(‘뿌리다’) 동사 뒤에 *ἐν*을 취하지 않고 *εις*(막 4:18)나 *ἐπί*를 취하기 때문이다(막 4:16, 20, 31). *σπείρω*(‘뿌리다’) 동사 뒤에 *ἐν*을 취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문체이다(마 13:19, 24, 27, 31). 그러므로 *ἐν ταῖς καρδίαις αὐτῶν*(‘그들의 마음에’)은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3:19의 *ἐν τῇ καρδίᾳ αὐτοῦ*(‘그의 마음에’)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에 조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⁸⁾

3.4. 마가복음 7:9 –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제임스왕역본은 마가복음 7:9에서 “Full well you reject the commandment of God, that ye may keep your own tradition.”이라고 한다. 『개역개정』도 유사하게 마가복음 7:9에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라고 번역한다. 『새번역』(2001)도 유사한 번역을 취한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공동번역』(1977)과 그 개정판(1999)은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는 번역을 취한다. 그러나 ESV(English Standard Version, 2001년)는 “You have a fine way of rejecting the commandment of God in order to establish your tradition!”이라고 번역한다. ESV는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택한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대신 “너희의 전통을 수립하려고”(to establish your tradition)라는 읽기를 택하는데, 이것은 NTG^{26,27}을 따라 베자 사본, 와싱턴 사본, 고대 라틴어 역본 등에 담겨 있는 *ἵνα τὴν παράδοσιν ὑμῶν στήσητε*을 택한 결과이다. 제임스왕역본을 비롯하여 NIV(1984), 『개역개정』 등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를 취하는 이유는 NTG²⁵ 또는 텍스트스 레챵투스를 따라 *ἵνα τὴν παράδοσιν ὑμῶν τηρήσητε*를 본문으로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읽기 중에서 텍스트스 레챵투스의 읽기는 마가복음의 문체에 맞지 않는다. 마가는 다른 곳에서 *τηρέω*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동사는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약 70번이나 사용된다. 한편, 마가복음에는 *ἵστημι* 동사가 자주

48) B. M. Metzger, *Textual Commentary*, 62은 자세한 논증 없이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사용된다(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약 9회). 그러므로 이 동사는 마가복음의 문체에 잘 맞는다. 따라서 NTG²⁷의 ἵνα τὴν παράδοσιν ὑμῶν στήσητε는 마가복음의 문체에 적합한 읽기이다.

필사자들은 ἵνα τὴν παράδοσιν ὑμῶν στήσητε를 더 친숙한 표현으로 만들려고 ἵνα τὴν παράδοσιν ὑμῶν τηρήσητε로 고쳤을 것이다. ‘전통을 지키다’는 표현은 신약성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계명을 지키다’(τηρέω 동사 + 명사 ἐντολή)는 표현은 마태복음 19:17; 요한복음 14:15, 21; 15:10(2회); 디모데전서 6:14; 요한일서 2:3, 4; 3:22, 24; 5:3; 요한계시록 12:17; 14:12에 사용되었기에 필사자들에게 친숙하였을 것이다. 물론 ‘전통을 수립하다,’ 또는 ‘계명을 수립하다’(ἰστημι 동사 + 명사 ἐντολή)라는 표현이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7:8에 ‘계명’(ἐντολή)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므로 필사자들은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이 단어와 함께 종종 쓰이는 τηρέω 동사를 도입하였을 것이다.⁴⁹⁾

3.5. 마가복음 8:26 - “마을에도 들어가지도 말고, 그 마을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개역개정』은 마가복음 8:26에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는 번역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바티칸 사본 등에 담긴 μηδὲ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έλθης를 택한 NTG²⁷과 일치한다. 그런데, KJV는 텍스투스 레킵투스를 따라 μηδὲ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έλθης μηδὲ εἴπης τινὶ ἐν τῇ κώμῃ를 택하여 “Neither go into the town, nor tell it to any in the town.”(“마을에도 들어가지도 말고, 그 마을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번역한다.

텍스투스 레킵투스의 읽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표현을 마가 자신이 기록했을 리는 없다. 이러한 읽기는 필사자들의 오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이다. 어떤 필사자가 우선 26절의 문맥(ἀπέστειλεν αὐτὸν εἰς οἶκον αὐτοῦ)을 통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냈다는 것을 안다. 이어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μηδὲ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έλθης)을 읽는다. 이 때, 그 사람의 집이 마을에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두 진술 사이의 모순을 느낀다.⁵⁰⁾ 그리하여, 이것을 “네 집으로 가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ὑπάγε εἰς τὸν οἶκόν σου καὶ μηδὲν εἴπης εἰς τὴν κώμην)로 고친다. 이러한 읽기는 베자 사본과 고대 라틴어 역본 q

49) B. M. Metzger, *Textual Commentary*, 81.

50) B. F. Westcott and F. J. A. Hort, *Introduction*, 100.

에 담겨 있다. 후에 다른 필사자가 이 두 가지 읽기들을 발견하고 병합하여 $\mu\eta\delta\acute{\epsilon}$ $\epsilon\iota\varsigma$ $\tau\eta\nu$ $\kappa\acute{\omega}\mu\eta\nu$ $\epsilon\iota\sigma\acute{\epsilon}\lambda\theta\eta\varsigma$ $\mu\eta\delta\acute{\epsilon}$ $\acute{\epsilon}\iota\pi\eta\varsigma$ $\tau\iota\nu\acute{\iota}$ $\acute{\epsilon}\nu$ $\tau\eta$ $\kappa\acute{\omega}\mu\eta$ 라는 읽기에 도달한다.⁵¹⁾

혹자는 $\mu\eta\delta\acute{\epsilon}$ 는 “-도 아니며”(neither)라는 뜻을 가지므로 문장을 완성하려고 또 하나의 $\mu\eta\delta\acute{\epsilon}$ 절(“-도 아니다”)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mu\eta\delta\acute{\epsilon}$ 는 “-도 아니며”(neither)라는 뜻을 가지지 않고 “-조차 아니며”(not even)라는 뜻을 가진다(마가 2:2; 3:20).⁵²⁾ 따라서 마가복음 8:26에서 $\mu\eta\delta\acute{\epsilon}$ $\epsilon\iota\varsigma$ $\tau\eta\nu$ $\kappa\acute{\omega}\mu\eta\nu$ $\epsilon\iota\sigma\acute{\epsilon}\lambda\theta\eta\varsigma$ 는 이러한 용법에 따라 “그 마을에 들어가기조차 하지 말라.”고 번역할 수 있으므로 또 하나의 $\mu\eta\delta\acute{\epsilon}$ 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6. 마가복음 9:23 –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KJV는 마가복음 9:23에서 텍스트스 레캡투스를 따라 “If y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tau\acute{o}$ $\epsilon\iota$ $\delta\acute{\upsilon}\nu\alpha\sigma\alpha\iota$ $\pi\iota\sigma\tau\epsilon\acute{\upsilon}\sigma\alpha\iota$ $\pi\acute{\alpha}\nu\tau\alpha$ $\delta\upsilon\nu\alpha\tau\acute{\alpha}$ $\tau\acute{\omega}$ $\pi\iota\sigma\tau\epsilon\acute{\upsilon}\omicron\nu\tau\iota$ 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로 번역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관사 $\tau\acute{o}$ 는 여기서 단어나 구, 또는 문장을 인용할 때 쓰는 인용부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⁵³⁾ 예수께 나아온 사람이 한 말은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이 아니라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22절)이었으므로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읽기는 문맥에 맞지 않다. 텍스트스 레캡투스는 예수께 나아온 사람이 결국 예수의 믿음을 의심한 것으로 읽게 한다. 그러나 22절은 그가 의심한 것은 예수의 능력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개역개정』은 텍스트스 레캡투스의 $\tau\acute{o}$ $\epsilon\iota$ $\delta\acute{\upsilon}\nu\alpha\sigma\alpha\iota$ $\pi\iota\sigma\tau\epsilon\acute{\upsilon}\sigma\alpha\iota$ 대신 NTG판을 따라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등에 담긴 $\tau\acute{o}$ $\epsilon\iota$ $\delta\acute{\upsilon}\nu\eta$ 를 택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번역한다. NIV는 ‘If you can’($\epsilon\iota$ $\delta\acute{\upsilon}\nu\eta$)이 인용임을 파악하고,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라고 번역한다. 예수께 나아온 사람이 한 말은 $\acute{\epsilon}\lambda\tau\iota$ $\delta\acute{\upsilon}\nu\eta$ 였으므로(22절) 이것은 정확한 인용이다. ‘당신이 무언가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도와 달라는 요청을 한 사람에게 예수는 이

51) B. M. Metzger, *Textual Commentary*, 84은 자세한 논증 없이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 한편, W. N. Pickering, *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revised ed. (Nashville: Thomas Nelson, 1980), 193은 자세한 논증 없이 이 읽기가 병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2) J. M. Ross, “Another Look at Mark 8:26”, *NovT* 29 (1987), 99; BDAG, 647.

53) 이러한 용법에 관하여 BDF, §267 참조.

단서를 인용하며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개역개정』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번역하여 이러한 의미를 적절하게 살린다.

여기서 텍스투스 레킵투스의 τὸ εἰ δύνασθαι πιστεῦσαι은 필사자들이 τὸ의 인용부호로서의 용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리하여 τὸ εἰ δύνη를 인용이 아닌 예수의 말씀의 일부로서 “만일 네가 할 수 있다면”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쓰는 ‘너’는 예수께 나아온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문맥상 이 사람의 능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되는 것이므로(24절), 필사자들은 πιστεῦσαι를 추가하여 “네가 믿을 수 있다면”이라는 읽기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인용부호 τὸ를 그대로 남겨두어, 그들의 읽기가 결국 문맥에 맞지 않는다는 단서가 되게 하고 말았다.

3.7. 마가복음 15:28 - “그리하여 ‘그리고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세어졌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성취되었다.”

KJV는 마가복음 15:28에서 텍스투스 레킵투스에 담긴 καὶ ἐπληρώθη ἡ γραφή ἢ λέγουσα καὶ μετὰ ἀνόμων ἐλογίσθη를 번역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그리하여 “그리고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세어졌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성취되었다.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등에는 마가복음 15:28이 빠져 있는데, NTG²⁷ 본문은 이러한 읽기를 채택하였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은 NTG 본문을 따라 마가복음 15:28을 빠뜨린다. 이러한 빠뜨림은 마가복음 15:29의 시작이 28절에서처럼 καὶ이기 때문에 28절 앞에서 필사자가 29절의 καὶ로 건너 뛴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텍스투스 레킵투스의 마가복음 15:28에 담긴 그리스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마가복음의 문체와는 다른 표현이 발견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λέγουσα(‘말하는’)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의 문체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구약을 인용할 때 이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마가는 구약을 인용할 때, γέγραπται(‘기록되었다’)를 쓴다(마가 1:2; 7:6; 11:17; 14:27). 그러므로 텍스투스 레킵투스에 담긴 마가복음 15:28은 야고보 2:23(καὶ ἐπληρώθη ἡ γραφή

ή λέγουσα)과 누가복음 22:37(καὶ μετὰ ἀνόμων ἐλογίσθη)의 영향을 받아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⁴⁾

4. 맺음말

신약성서의 텍스트스 레캡투스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권위에 입각하여 계속 사용되어지는 관성을 가진 본문이기에 본문 비평 작업을 통하여 비판되는 것을 거부하며 나아가 원본문과 동일하다고 믿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텍스트스 레캡투스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유형이나 서방 본문 유형보다 후기에 형성된 본문에 토대하며, 이 본문을 다수의 사본들이 지원하는 것은 이 본문이 원본문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박해로 인한 초기 사본들의 소실, 무슬림의 기독교 지역 정복, 그리스어 사용 지역의 축소 등 역사의 우연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다른 본문들보다 원칙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될 수는 없다. 텍스트스 레캡투스에 관한 평가는 한 구절 한 구절 본문 비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가복음에서 텍스트스 레캡투스를 본문 비평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리는 텍스트스 레캡투스에 필사자들의 오류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찰은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원본문을 그대로 담고 있는 완벽한 본문은 아님을 알려준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고대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나 이를 토대로 한 비평 본문(예를 들어 NTG²⁷)보다 열등하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상대적 열등성에 대한 결론은 두 본문에 담긴 오류들의 수를 비교한 후에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스 레캡투스가 원본문을 있는 그대로 전승한 본문은 아니라는 결론은 NTG²⁷과 같은 비평 본문이 완벽하다는 주장을 함축한다고 흑백 논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NTG²⁷의 본문에도 개정될 곳이 많음에 관하여는 이미 필자가 본문 비평 작업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다.⁵⁵⁾ 비평 본문은 그 성격상 원본문을 재구성하려는 본문 비평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본문을 사용하는 학자들은 더 엄밀한 비평 작업을 거쳐 비평 본문을 원본문에 근접시키려는 노력을 거부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원본문이 남아 있지 않으며, 원본문에 도달하려면 본문 비평 작업을 해야 하고, 이러한 작업을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원본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통 본문이든, 텍스트스 레캡투스이든,

54) B. M. Metzger, *Textual Commentary*, 99은 자세한 논증 없이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55) 신현우, 『마가복음의 원문을 찾아서』(용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6) 참조.

다수 본문이든, 우리에게 이미 원본문을 담은 본문이 있다는 주장은 매우 달콤한 유혹이다. 만일 그렇다면 본문 비평이라는 고된 작업이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본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고 착각하며 잘못된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안위보다는 원본문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본문 비평적 노동이 우리에게 진지한 탐구에 토대한 참된 안전을 보장한다. 원본을 찾아가는 여정에서는 원본문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 강한 믿음보다는 원본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래 참는 사랑이 진리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주요어>(Keywords)

본문 비평, 텍스투스 레킵투스, 전통 본문, 비잔틴 본문, 다수 본문, 제임스왕역본, 마가복음.

Textual Criticism, Textus Receptus, Traditional Text, Byzantine Text, Majority Text, King James Version, Mark.

* 참고문헌(References)

- Caesariensis, E., *The Ecclesiastical History*, K. Lake, J. E. L. Oulton, and H. J. Lowlor, eds., 2 vo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6-32.
- Hieronymus, E., *Praefatio Hieronymi in quatuor Evangelia*, J. P. Migne, ed., *Patres Latini*, 29, Paris: Migne, 1846, 525-530.
- Hodges, Z. C. and Farstad, A. L., eds., *The Greek New Testament According to the Majority Text*, 2nd ed., Nashville: Thomas Nelson, 1985.
- Wettstein, J. J., “Animadversiones et cautiones ...”, J. J. Wettstein, ed., *Novum Testamentum Graecum*, 2, Amsterdam: ex Officina Dommeriana, 1752 [repr. in Graz, 1962], 851-874.
- 박창환, “텍스트스 레셉투스의 정체(正體)”, 『성경원문연구』 1, 1997, 11-33.
- 신현우, 『사본학 이야기』, 서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5.
- 신현우, 『마가복음의 원문을 찾아서』, 용인: 웨스트민스터출판부, 2006.
- Blass, F. and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W. Funk, tra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van Bruggen, J., *De Tekst van het Nieuwe Testament*, Groningen: De Vuurbaak, 1976.
- Burton, J. W., *Traditional Text of the Holy Gospels Vindicated and Established*, E. Miller, ed., London: George Bell and Sons, 1896.
- Burton, B., *Let's Weigh the Evidence*, Chino: Chick, 1983.
- Elliott, “The Relevance of Textual Criticism to the Synoptic Problem”, D. L. Dungan, ed.,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Gospels*, BETL 95, Leuven: Peeters, 1990, 348-359.
-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 Holmes, M. W., “The ‘Majority Text Debate’: New Form of an Old Issue”, *Themelios* 8 (1983), 13-19.
- Kilpatrick, G. D., “The Greek New Testament Text of Today and the Textus Receptus”, H. Anderson & W. Barclay, eds., *The New Testament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Oxford: Basil Blackwell, 1965, 189-208.
- Metzger, B. M.,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1st ed., Oxford: Clarendon,

- 1964.
- Metzger, B. M.,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Metzger, B. M.,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2nd e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 Pickering, W. N., *The Identity of the New Testament Text*, revised ed., Nashville: Thomas Nelson, 1980.
- Ross, J. M. "Another Look at Mark 8:26", *NovT* 29 (1987), 97-99.
- Shin, H. W., *Textual Criticism and the Synoptic Problem in Historical Jesus Research*, CBET 36, Leuven: Peeters, 2004.
- Sturz, H. A., *The Byzantine Text-Type and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New York: Thomas Nelson, 1984.
- Streeter, B. H., *The Four Gospels: A Study of Origins*, 1st ed., London: Macmillan, 1924.
- Vaganay, L. and Amphoux, C.-B., *A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J. Heimerdinger,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Wallace, D. B., "The Majority Text: A New Collating Base?", *NTS* 35 (1989), 609-618.
- Wallace, D. B., "The Majority Text Theory: History, Methods, and Critique", B. D. Ehrman and M. W. Holmes, eds.,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n Contemporary Research: Essays in the Status Quaestionis*, Grand Rapids: Eerdmans, 1995, 297-320.
- Westcott, B. F. and Hort, F. J. A.,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Introduction. Appendix*, 2nd ed., London: Macmillan, 1907.

<Abstract>

The *Textus Receptus* and Textual Criticism

Prof. Hyeon Woo Shi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e *Textus Receptus* of the New Testament has become authoritative by its long use in Christian churches, and has finally secured some advocates who came to believe it to be identical with the original text. The Byzantine text-type which is contained in the *Textus Receptus*, however, has emerged later than other ancient text-types, such as the Proto-Alexandrian and the Western text-types. The Byzantine text came to be preserved in the majority of the Greek New Testament manuscripts as the result of historical accidents such as the burning of early manuscripts by persecution; the Moslem conquest of the former Christian regions; the reduction of the geographic range of Greek. Thus the majority of New Testament manuscripts which support this text does not guarantee its originality.

The evaluation of texts should be done text-critically variant by variant. In this paper, we have text-critically examined the Marcan text of the *Textus Receptus* and found several significant scribal errors. This study shows that the *Textus Receptus* does not perfectly preserve the original text as it was.

Our conclusion, however, does not imply that the *Textus Receptus* is inferior to the critical text such as the NTG²⁷. Relative inferiority of the *Textus Receptus* to others may only be demonstrated by comparing the number of scribal errors in these texts with each other.

Scribal errors in the *Textus Receptu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NTG²⁷ is identical with the original text. The NTG²⁷ also needs to be revised in various places. The NTG²⁷ is the result of scholarly effort to reconstruct the original text, but the original text does not exist in front of us (or is not known to us). The *Textus Receptus* advocates the claim that we do have the original text. This claim is tempting since it nullifies the necessity of the labour of textual criticism. However, a claim based on a firm conviction does not substantiate its content. For the search of the original text, strong conviction that we do have the original is not better than long-suffering love and pursuit of it.